

대한양계협회의 소식

고태영부회장 물가당국 방문 —추석직후, 양계산물수입 재고 설득—



(고태영 부회장)

본회 고태영부회장은 채란업계를 대표해 지난 9월 18일 오전 11시에 경제기획원 물가당관을 방문하여 계란(난분)수입계획 취소 및 계란가격 일시상승요인과 수급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임용택, 허돈, 심준식씨 등 생산자와 본회 황인옥전무가 함께 동행한 이번 방문은 물가당국에서 추석(9월 10일)성수기를 지나서도 가격의 하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가안정을 위해 계란과 닭고기를 수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채란양계업계를 대표하여 △ 계란가격의 일시상승 요인과 △ 지난 수년간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설명 △ 계란의 계절별 수급동향 및 금후의 단기전망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끈질긴 설득을 통해 계란·닭고기 수입유보를 요청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 닭고기 수입유보와 계란가격 추세에 따라 수입계획을 재

검토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본회 황전무는 9월초 부터 닭고기와 계란가격이 급등하자 수차례에 걸쳐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 물가당국을 방문해 양계업의 현황 설명과 양계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해 온 바 있다.

물가당국에서는 당초 추석이 지나 가격하락을 예상했으나 일주일의 지나도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자 계란(난분)과 닭고기를 긴급히 수입키로 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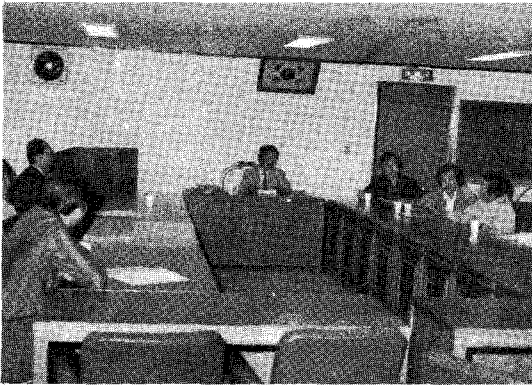
불량사료 발생시 신고

불량사료신고에 대한 농수산부 공문이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는바 양축농가에서는 불량사료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

○ 최근사료의 품질이 저하되어 있다는 양축가들의 이문과 불량사료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료에 의한 피해의 증거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료검사를 위한 사료를 채취할수 없어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할수 없는 바, 그 양축가에 대하여 사료에 의한 가축의 피해 발생시에는 문제된 사료와 개포되지 않은 사료·가축 등을 그대로 보존한후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육계분과 위원회 개최

— 지난 9월2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



9월27일 열린 9월 육계분과위원회에서 본회 황인욱전무는 업무현황보고에서 가격안정화를 위한 상시 비축용으로 국내에서 생산 수급 조절하는 방안과 동원산업의 협찬으로 실시한 육류소비 홍보실적을 보고했다.

이어 각 지역별 현황에서 육계가격은 950원/kg선이고 초생추가가격은 180~260원선에서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겨울전망에서는 작년동기에 비해 30%정도 소비가 감소하고 중간상인이 마진을 인하시키지 않아 소매가 2,000원선으로 소비에 큰 위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소비자가 아직도 닭고기가 비싸다는 인식때문에 소비감소와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국 15개 큰 부화장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하는 대군부화장의 증가로 육계업체도 채란업체와 같이 안정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부화장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부화업은 대군업자의 생산량의 증가와 소규모 부화장의 도태로 생산량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부화 및 종계업회원 간담회 개최

— 9월 26일 축산회관 지하실에서 —

본회 부화 및 종계업회원 간담회가 회원 20



(남공선 박사)



(박준영 사장)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26일(수)에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가진 세미나에서 남공선박사(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는 종계 방역대책에서 「추백리는 선진국에서는 60년대에 없어졌다」고 전제하고, 혈청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적게 나타나는 농장이 10%, 많은 곳은 25%까지 나타내어 종계로서 상상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추백리 검사는 지난 3월 26일자로 실시요령을 발표한바(검사는 농장(종계장)에서 하되 수의사가 아니어도 실시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인 검사) 등록된 종계에만 관계기관에서 검사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종계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9월말까지 1차 결과를 농수산부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으며, 농장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 병에 대하여 외국에는 70년대에 없어진데 비해 우리는 일부 감염율은 많은 농장이 80%, 적은 농장이 40% 이상 감염되어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금년도는 추백리틀, 내년에는 마이코플라즈마를 퇴치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혈청검사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질병은 혈청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종계의 질병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농장은 질병문제가 없는데 혈청검사를 하지 않는 농장에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는한 우리나라 종계장은 전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전국부화 및 종계업 회원 간담회

이어진 간담회에서 본회 황인욱전무는 업무 보고를 통해 계란·닭고기 홍보를 TV, 신문, 잡지에 동원산업의 협조로 실시했고, 9월 1일에 일본 양계 연수생 6명을 파견하고 닭고기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를 당국과 협의조치했으며, 검정소는 작년도 공사는 100% 공정을 마쳤고 금년도 공사는 90% 공정을 끝냈다고 말했다.

또한 종계장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CC 검정을 거쳐야 될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박준영사장(본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각지역 산란계 및 브로일러 CC가격 조사와 업계전망에서는 대규모 종계장화 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9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일본 채란양계시설, 질병방역, 계분처리 세미나 —

9월 채란분과위원회가 9월 1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질병방역」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바이엘화학(주)의 협조로 미국 Salsbury 社の Gerden 박사가 MD 및 MG의 방역과 백신의 종류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슬라이드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SB백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백신의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역이 잘 되지 않았거나 백신취급상의 요령부족, 품종특성에 맞추지 못했거나 하는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채란양계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는 제일양계기구의 하재기부사장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계사구조, 케이지, 급이시설, 급수장치, 집란시설, 계분처리 등의 현황을 소개한 후, 자사에서 한국양계에 맞는 양계기구를 보완 개발하여 10월말경에 양축가를 상대로 제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9월 채란분과위원회

또 계분처리에 대해서는 계분발효방법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중인 김동한(동한농장) 사장이 설명했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협회주요업무보고에서 본회 황인욱전무는 계란과 닭고기가 물가당국의 체크대상이 되고 있는데, 추석 이후까지 계산물 시세가 계속 강세를 보이자 당국에서 닭고기와 계란을 수입하는 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욱전



(Dr. Gerden) (하재기 부사장) (김동한 사장)

무는 또 일단 수입의 문이 열리면 86·88 행사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닫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의 안전토의에서는 계란수입에 대한 문제가 중점 논의되었는데, 난분수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생산자 대표를 선정하여 익일(9월 18일) 물가당국과 농수산부를 방문, 생산자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당국자에게 계산물에 물가지수에 영향을 더이상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설득시키기로 했다.

경북지부, 수해농가에 인삼 전달

본회 경북지부(지부장 박규병)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양계농가 7가구를 방문, 격려하고 인삼을 전달했다.

그런데 이번에 심한 타격을 받은 산란계 및 육용계농장은 대구시 서면동, 달성군 하빈면, 칠곡군 석적면, 성주군 선남면, 청도군 화양읍 지역 등 7곳으로 피해액은 1억 7천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본회 사무국장 새마을교육 입소

본회 임덕성사무국장은 지난 9월 3일 부터 8일 까지 일주일간 성남시 소재 새마을교육연수원에 입소 84 새마을교육을 받았다.

84업무감사 수검

본회는 지난 9월 27일(목)부터 29일(토) 까지 농수산부 감사관실로부터 본회 업무 전반에 걸쳐 84업무감사를 받았다.

본회 편집국장 언론연수교육

본회 노영한 편집국장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산업시찰 및 문화유적지 시찰(문공부 주관)에 참가한 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언론연수교육을 받았다.

84 닭 인공수정사 교육

— 수정율 및 종계능력 향상위해 —

본회는 양계생산규모가 대형화되고 종계의 사육형태가 케이지화 함에따라 각 종계장에서 인공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보다 나은 수정율의 향상으로 종계의능력 생산성 제고를기 하기위해 회원농장(종계장 부화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84 닭 인공수정사 교육을 오는 11월 20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강희망대상자의 신청서(수강료 1만원)를 접수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닭의 번식생리, 종계방역, 인공수정 이론 및 실제, 정액채취 시범, 질의응답 및 사례발표 등을 교과과정으로 오는 1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부터 하루종일 실시한다. 강사는 연구기관, 학자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할 예정이다. 본 교육수료자에게는 본회에서 발행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이번 교육은 작년에 비해 실습과정이 생략되는데 이는 교육참가자들의 교육장 이동 등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 종계장(부화장)관계실무자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월)까지 소정양식에 의거 수강료와 함께 본회로 신청하면 된다.

본회는 교육장 시설을 감안해 선착순으로 한정인원에 대해서만 수강신청을 받을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한양계협회 각 도지부 및 본회 또는 서울본회(☎ 752-3571 ~ 2,6917)로 문의하면 된다.

84닭 인공수정사 교육 계획

- 교육일시 : 84·11·20(화) 09:30~16:30
- 교육장소 : 본회 지하 회의실
- 교육대상 : 본회회원 종계장에 근무하는 인공수정사
- 수강료 : 1인당 10,000원

- 수강신청 : 84. 10. 22~11. 5 (월)까지
- 수강신청 서류 : 수강료 및 수강신청서 (본회 양식)

84년도 제 3 차 이사회 개최예정

— 10월 11일, 본회지하회의실에서 —

금년도 제 3 차 이사회를 10월 11일(목) 오후 2시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의 부의안건으로는 △ 신가입회원의 승인 △ 84수지예산 추가경정 △ 제규정 일부개정 (안) 검토 △ AAAP 가입의 건 △ 닭경제능력 검정소 준공식개최의 건 △ 기타사항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 앞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양계산업전망」(강사 :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박영인박사)에 대해 특별 세미나도 있을 예정이다.

계란 및 유통규격조사 연구사업

— 본회, 한국가금학회 협조로 —

본회는 양계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화로 상품성제고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우리나라 시장구조에 알맞는 합리적인 유통규격(등급규정)을 설정키위해 양계산업 유통규격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86·88국제행사와 2천년대의 양계산업발전의 이정표가 될 이번 유통규격조사연구사업은 현재 계속적인 양계산물의 물량증가에 따라 계란과 육계의 단순무계거래에서 내부품질, 영양가기준, 체중별 도체등급에 의한 도체율 거래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계란의 경우 △ 현거래 조사의 실태 및 문제점 비교검토 △ 외국(미국, 일본, 유럽공동시장)의 계란등급 및 유통규격조사 △ 시장유통되고 있는 계란의 규격과 유통단계별 가격조사 △ 백색 및 갈색 산란계의 일령별 계

란의 품질과 무계별 생산비율 조사 △ 계란의 거래등급별 난질, 영양가 함량 및 적정가격비율 설정 △ 계란의 거래등급 및 규격설정 △ 새로 설정된 계란의 거래등급 시행방법이 행해지며,

육계에 대해서는 △ 현거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비교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육계 및 도계등급과 유통규격 조사검토 △ 시장유통되는 육계의 종류와 규격 △ 육계의 종류별 출하체중 분포 △ 육계 및 도계의 종류별 소비자 기호도조사 △ 육계의 종류별·체중별 도체율, 부위별 도체율조사 및 가격비율 조사 △ 육계의 거래등급 및 규격설정 △ 새로 설정되는 육계 및 도계의 거래등급 시행방법 제시등이 행해질 예정이다.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거래등급제정 및 등급별 적정가격 비율 규명과 유통능률향상,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이다.

본사업은 금년 9월 7일 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행해지는데 본회는 지난 9월초 축협중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본 조사용역은 한국가금학회(회장 오봉국)에서 실시중에 있다.

한편 채란업계에서는 계란의 현행 유통규격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규격이 차이가 있어 생산자의 불이익상태가 야기돼 관계기관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본조사의 성공리적 추진여하에 따라 양계산물 유통의 선진화가 앞당겨질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양계산업전 안내

매년 1월 20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개최되는 양계산업전에 우리 양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85년도 1월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이나 양계업자는 본회에 신청하면 본회에서 안내를 할 예정이다.